/지역 단신/

## 함평경찰, 사행성게임장 근절 간담회

함평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이기완)는 지난 25일 지구대 회의실에서 노금노씨 등 지역주민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행성 게임장 관련 특별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완 지구대장은 "불법사행성 게임을 지역에서 근절하기 위한 주민 신고와 관계업소의 협력을 당부하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관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장흥군-KBS TV 난시청 해소 협약

장흥군 일부 지역의 TV 난시청 문제가 해소된다.

장흥군과 KBS 광주방송총국은 23일 장흥군청에서 김인규 장흥군수와 이준삼 KBS 광주방송총국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장흥군의 산간오지 및 독가촌 등의 난시청 세대 210세대를 선정,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KBS 광주방송총국 주관으로 무궁화 위성(2,3호) 동시수신 셋톱박스 및 안테나 설치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해상국립공원 해수욕장 인명사고 '0'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소장 정장훈)가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 결과 지난 7월22일부터 8월20일(30일간)까지 해상국립공원내 3개 해수욕장에서 단 1건의 각종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도해서부사무소는 이번 기간동안 신안군 도초 시목해수욕장,우이도 해수욕장과 진도군 조도 관매도해수욕장에 탐방객 안전관리반을 운영하여 물놀이 사고와 미아찾기 등 7건, 총 8명을 구조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장흥군 2주간 무료로

장흥군이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2주간 무료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10일 동안 산후조리의 지식을 이수한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모 영양,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가 130%이하(4인가구 기준 지역보험료 3만1천930원)인 가정이며 출산 2개월 전에 보건소에 신청서,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나주시 120개 위원회 '난립'

## 전문성 없는 특정인사 끼워넣기식 위원 선임

## 시정수행 되레 걸림돌로… 통·폐합 서둘러야

나주시에 12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난립돼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실·과·별로 124개 위원회가 구성 돼 있으며 해당 위원회별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위원에 선임되는 것 자체가 감투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나주시 역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전가의 한 방편으로 위원회를 늘리고 있어 효율적인 시정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중복 선임돼 특정인사들이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들의 경우 조례에 따라 당연직으로 위원자리가 보장된 위원회만 18개로 의원 1인당 2.5개 위원회에 몸담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해당 실·과·소의 경우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보다는 자신들의 업무에 우호적인 시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모시기 경쟁으로 특정 의원이 10여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시의원을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피해가는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은 물론이며 예산을 확보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의 참여행정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단체 임원을 끼워넣기식으로 선임하다보니 특정 단체 소속 인사들이 각각 10여개 이상의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모(49.나주시 송월동)씨는 "특정 인사들이 100여개가 넘는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다" 며 "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따라 위원회가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 시정책에 혼란을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땅끝 해안도로변 정비** 해남 땅끝해안도로가 산뜻하게 정비됐다. 땅끝 해안도로변에는 벚나무, 후박나무등 1천20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돼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 상반기에도 벚나무와 배롱나무 270여주를 심고 소공원 1개소를 조성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 '담양사랑 상품권' 나온다

### 郡, 5천원·1만원권 10만장

###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담양사랑 상품권'이 내년부터 발행된다.

담양군은 최근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 군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1차로 5천원권 4만장과 1만원권 6만장 등 총 10만장의 담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담양 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액면가 80% 이상 구매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군은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과 사회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군민애향운동 차원으로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할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또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때 보상이나 격려·표창 등에 대한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명절 위문금과 각종 공사비 일부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중이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 버스·군용차량 범퍼·차체 생산 기아차 협력사

## (주)에스앤씨 함평공장 완공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주)에스앤씨 함평공장이 완공돼 지난 25일 준공식을 가졌다.

(주)에스앤씨 함평공장은 학교면 죽정리 일대 8,300평의 부지에 1,400평 규모로 건립돼 버스 및 군용차량의 범퍼와 자동차 차체를 생산하게 된다.

이날 준공식에서 이호경 부군수는 축사에서"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증대 등을 통해 함평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군에서도 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일윤 대표이사는 "부지매입 단계에서부터 공장 인 · 허가, 준공에 이르기까지 군의 행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함평군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 유치를 위해 행정지원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순창 '웰빙 산책로'** 순창군 경천 고수부지에 최근 '웰빙 순환 산책로'가 조성됐다. 순창군은 경천 고수부지 약 2.6km에 웰빙 산책로와 함께 50m에 이르는 건강지압로, 정자 5개소, 가로등 18개를 설치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

## 순천-광양 송전선 2개노선 지중화

### 한전, 조례동 일대 3.2㎞

### 내년까지 철탑 13기 철거

순천-광양 송전선로 2개 노선의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전력공사 부산 전력처에서 추진하는 순천·광양 송전선로 2개 노선 지중화 관로공사는 총연장 3.2㎞에 이르는 조례동 일대 관로를 대상으로 선로를 지중화하고 철탑 13기를 철거하는 공사다. 한전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순천시에 2개 노선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사업기간중 시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전소-공고간 1개 노선으로 병합 추진토록 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 후 빠른 시일내에 도로굴착을 허가할 방침이다.

오는 2007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심경관을 해치는 고압선이 지하로 매설돼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기대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노인건강복지 대축제'

### 순천시 내달 13~14일

순천시가 오는 9월 13·14일 이틀간 '제 1회 전라남도 노인건강복지 대축제'를 개최한다.

'활기찬 노후, 건강이 최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각 시·군에서 169팀 1천505명의 대표선수가 출전, 게이트볼,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국궁,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로 조사됐다"며 "행사장 준비와 숙박업소, 식당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제철소 주변 환경조사 약속 이행을"

## 전국 51개 환경단체 광양제철 앞 시위

광양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능스님)은 지난 26일 전국 51개 환경연합 조직과 연대해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제철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집회에서 "작년 5월에 체결한 전체 10개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확약서의 이행을 두고 광양제철소가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0월 15일 광양제철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환경개선을 권고 받았으며, 이후 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환경영향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사무국장은 이날 집회에서 " POSCO측의 태만과 무성의로 더 이상 협의의 진전을 이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스스로 약속한 확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면서 "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반드시 확약서를 이행하도록 강력투쟁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에 앞서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4년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의 광양지역 환경역학조사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만성기관지염 발생빈도가 전국 평균대비 11배에서 최대치 32배까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 장성군, 상거래 활성화 대책 추진

### 지역농산물 가공품 우선 구입 등 기업·기관 참여 유도

장성군이 지역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장성군은 민·관·기업의 공통 실천과제로 일상 소모품 및 선물용 농산물 가공품 구입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우선 구입하고, 친목모임활동도 지역 내에서 개최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황룡 5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보기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관내기업체 수주기회 확대 ▲기업체 창업 또는 이전 시 관내 건설기자재 구입 ▲지역내 SOC 확충 사업장 관내 중장비 이용 ▲전국·도 단위행사 유치 노력,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시 관내업소를 이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장성군 상품권 발행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로 수급 ▲교육기자재, 참고도서, 문구 등을 구입 시 관내 서점 및 문방구를 이용하고, 상무대에서는 장병 외출·외박 시 가능한 장성군 관내업소를이용하도록 유도할계획이다.

기업체에서도 우리고장 요식업소 이용하기 결의문을 채택하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지역 소상공인회와의 우리고장 상품애용을 위한 협약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